



Abstract Submission No. : 9029

Present of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Chul Woo Yang

President,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Korea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신장학회는 40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0 년 100 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학회는 현재 회원수가 2,000 여명으로 늘어났고, 학술대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회 공식학술지인 KRCP 가 오랜 준비 끝에 SCIE 에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신장학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학회로 자부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학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제 4 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흐름에 적응하여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0 년 역사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대한신장학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10 가지 분야를 정하고 각각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하나하나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KSN2021 에서는 지난 40 년간 학회의 발전상을 정리하고 현재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 년후 대한신장학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학회로 발전하여 창립 50 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세계각국의 신장학 의사들로 넘쳐나는 아시아 최고의 학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